**Jeffrey Hudon 박사, 성서 고고학,   
세션 7, 지리적 영역, 3부**

© 2024 Jeffrey Hudon 및 Ted Hildebrandt

성서고고학을 강의하는 Jeffrey Hudon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7, 지리적 영역, 3부입니다.

좋아요. 성경고고학을 이해하는 지리적 맥락을 살펴보면서 다음으로 연구할 지역은 셰펠라이다. 그것은 다시 저지대를 의미하는 히브리어이지만 실제로는 산기슭과 계곡을 의미하며 여기와 여기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은 서쪽을 바라보며 그들 아래에 있는 저지대나 산기슭을 바라보는 산간 지대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점에서 취한 것입니다. 여기서 셰펠라라는 용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셰펠라(Shephelah)는 산간 지방에서 나와서 해안으로 향하는 구불구불한 일련의 계곡입니다.

순서대로입니다. 아얄론 계곡, 그리고 이곳은 정복 기간 동안 여호수아서에서 태양이 멈춰 있던 곳입니다. 아얄론 계곡을 따라 있는 주요 도시는 게셀(Gezer)입니다.

그리고 더 남쪽에는 소렉 계곡이 있는데, 그것은 실제로 예루살렘 근처에서 시작되거나 시작되는 르바임 계곡입니다. 그리고 소렉 밸리(Sorek Valley)는 다시 빨간색을 의미하는데, 아마도 그곳을 따라 진행된 포도 재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의 주요 도시는 일종의 관문 도시인 Beit Shemesh입니다.

그리고 더 아래에는 팀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렉 계곡에서 더 남쪽으로 가면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으로 유명한 엘라 계곡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의 주요 성읍, 관문 성은 아세가인데 이스라엘의 성읍이면서 동시에 가나안의 성읍이기도 하다.

더 남쪽에는 라기스의 주요 도시인 라기스 유적지가 있는 라기스 계곡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사진들은 그곳의 지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계곡과 산기슭, 낮은 언덕이 있어 농사짓기에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기억하세요. 여기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있고 여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철기 시대의 사전 군주제와 초기 군주제의 맥락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셰펠라는 국경지대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은 전쟁, 대부분의 전쟁과 전투가 일어난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하다면 블레셋 사람들을 해안 평원으로 밀어낼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강하다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산간 지방으로 밀어내고 더 멀리까지 밀어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셰펠라의 중요성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여기는 아일랜드 밸리입니다. 저 멀리 현대적인 고속도로가 보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이 계곡에서 벌어진 전쟁과 전투로 고대와 현대 모두에서 매우 유명합니다. 아름다운 계곡. 그리고 여기에 섬 계곡을 지배하는 주요 도시인 게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게셀은 강력한 가나안 도시였으며 나중에는 이스라엘 도시였습니다. 열왕기상에서 솔로몬이 요새화한 한 도시가 그 점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게셀의 유명한 솔로몬 문입니다.

여기로 가는 도시 배수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장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시로 들어가는 내부 관문이며 여기에 여섯 개의 방이 있고 여기에 다시 표시된 이 유명한 여섯 개의 방 문이 있습니다.

게셀의 또 다른 유명한 기념물은 가나안 산당으로, 청동기 시대에 가나안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예배 장소였던 입석입니다. 이제 고대에는 이러한 것 위에 비문이나 그림이 새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오랫동안 지워졌지만 여전히 유효하며 실제로 최근 Bill Deaver가 논문으로 출판했습니다.

좋아요, 다음 남쪽은 역사적인 계곡이고 이곳은 사사기에서 삼손을 둘러싼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삼손, 이것은 그의 생애 동안 일종의 베일리윅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계곡에서 그곳의 일부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벳세메스는 이곳의 주요 도시입니다. 다시 한 번 흥미를 끄는 것은 가나안 사람이었고 당시에는 이스라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벡 근처 에벤에셀 전투에서 법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긴 후 블레셋 성읍들을 순회하여 온갖 문제를 일으켰고,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 역사적인 계곡 위로 돌려 보냈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벧세메스 사람들은 농사를 짓다가 수레가 오는 것을 보고 소로 제사를 드리며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손에 돌아온 것을 기뻐하였다.

Beth Shemesh는 가장 최근에 Tel Aviv University에서 여러 번 발굴되었으며 철기 시대, 특히 8세기에 거주했다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흥미로운 지정학적 의미를 담고 있는 성벽을 찾을 수 없습니다. 여기 이 언덕 꼭대기에는 삼손의 고향인 조라(Zora)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요르단 계곡 양쪽에 진행되고 있는 성지의 재삼림으로 덮여 있고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곳 엘라 계곡은 다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곳이며, 우리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흥미로운 개요를 얻었습니다. 여기 엘라 계곡 자체는 동쪽에 있고 서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현재 Khirbet Qeiyafa의 유명한 장소입니다. 성서의 Sha'arim일 수도 있고 다시 Sha'ar 또는 문의 이중 형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두 개의 문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사울의 요새였습니까, 아니면 다윗의 요새였습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다윗이 여기에 초소를 세웠습니까, 아니면 여기에 성읍을 세웠습니까, 아니면 사울이 먼저 세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역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계곡 건너편에 있었고, 다윗과 골리앗은 바로 이 지역에서 싸웠습니다. 이것이 Mano E Mano의 맨투맨 대회 경기장에 대한 좋은 조감도를 제공합니다. 흥미롭게도 아세가는 나중에 다시 유다의 중요한 도시에 있습니다.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사람의 가드는 여기 해안 평야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여전히 엘라 골짜기에 있고, 여기 엘라 골짜기를 따라 있습니다. 샤아림에 대한 초기 생각은 블레셋 사람들이 샤아림으로 가는 길을 통해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은 아세가 주변에는 해안 평야로 들어가는 두 개의 관문인 두 가지 길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두 개의 문이 있는 이 도시를 갖게 되었고, 그 이름 뒤에 있는 장소가 아마도 그 곳일 것입니다. 그리고 더 아래에는 이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Tel Es-Safi가 있습니다.

Gan Leumi Tel Tzafit, 국제 정원 또는 공원. Tel Tzafit은 Tel es-Safi 또는 블레셋 사람들의 Gath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방문객들을 맞이하는 블레셋 군인들의 컷아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요 도시입니다. 그리고 9세기에도 이곳은 레반트 지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큰 도시였으며, 예루살렘이나 다른 어떤 도시보다 훨씬 크고 매우 컸습니다. 가드에서 일했던 고고학자들은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변형이 새겨져 있는 오스트라콘을 발견했는데, 그곳에서는 꽤 흥미로웠습니다.

라기스 계곡을 따라 더 남쪽으로 가면 라기스 유적지가 있습니다. 또 큰 성읍이요, 매우 큰 성읍이요, 유다에서 예루살렘 다음으로 큰 성읍이요. 그건 그렇고, 이것은 고대 벽이 아닙니다.

이곳은 1930년대 이후 이곳에 버려진 발굴지의 잔해물을 버리기 위해 지어진 성벽이지만 매우 대도시이다. 여기에 기원전 701년 아시리아 침공 당시의 모습을 한 예술가가 다시 표현한 것이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서 유대 왕궁 요새를 볼 수 있습니다. 플랫폼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하며 벽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 번 발굴되었습니다. 현재 그것은 오스트리아 그룹에 의해 발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몇 년 전 미국-이스라엘 탐험대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물론 David Ussishkin의 주요 발굴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1930년대 제임스 레슬리 스타키(James Leslie Starkey)가 쓴 작품입니다. 따라서 산헤립의 군대가 라기스 성문을 공격하는 모습을 예술가가 표현한 것입니다.

기원전 701년. 좋아, 마케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호수아에 의한 가나안 연합의 패배를 기억한다면, 모든 가나안 왕들은 마케다라는 동굴에 숨어 그곳에서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동굴 입구는 봉쇄되었습니다.

그리고 Makeda는 아마도 1970년대 토론토 대학의 Dever와 Jack Holliday가 발굴한 Khirbet el-Qom이라는 사이트일 것입니다.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비문, 그들은 출판된 비문, Khirbet el-Qom 비문을 발견했지만 사이트는 출판되지 않았습니다.

불행하게도 Holliday 교수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고학의 문제이기도 하다.

굴착 작업이 있고 굴착기가 사망합니다. 누가 그 일을 맡아 출판할 것인가? 당연히 교수가 죽고, 굴착기가 죽으면 정보가 사라진다. 따라서 환상적인 메모를 작성하지 않는 한 보고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 굴착기의 머리에 있는 정보는 영원히 사라졌기 때문에 여기 비문에는 야훼와 그의 아세라, 그리고 물론 그 작업을 수행하고 히브리 대학, 히브리 유니언 칼리지 연례, 실례합니다, HUCA에서 그 정보를 출판한 Bill Dever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1960년대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내나 배우자가 있는 일종의 억압된 신, 야훼, 주님의 종교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면서 그것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데버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것은 성경이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혼합주의라고 불리며, 가나안 종교와 이스라엘 종교의 혼합으로 이스라엘과 유다의 존재 전체를 괴롭혔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것을 찾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유대인들과 이스라엘인들이 혼합주의를 실천하고 이 두 종교를 혼합한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Dever가 생각하는 것처럼 억압되고 널리 퍼진 민속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 종교의 측면을 취하여 함께 혼합했기 때문에 단순히 실천했습니다.

그러니 거기 있는 감미로운 제목, 충격적인 제목은 전혀 충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지에서 처음으로 체계적으로 발굴된 유적지 중 하나는 텔 베이트 미르심(Tel Beit Mirsim)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그 장소의 고대 이름을 모릅니다.

Albright는 그것이 Debir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불행히도 그는 틀렸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와 30년대에 윌리엄 폭스웰 올브라이트(William Foxwell Albright)에 의해 발굴되어 출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잘했습니다. 여기 꽤 흥미로운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은 1930년대 초 사이러스 고든이 디바트라고 생각했던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올리브 프레스인데, 올리브 프레스의 아래쪽 부분입니다. 저는 사이러스 고든(Cyrus Gordon)이 세상을 떠나기 전인 1992년에 그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유대인 학자였고, 언어 능력에 재능이 있었고 독보적이었습니다.

그의 생각 중 상당수는 다소 평범하지 않았지만 그는 당시 매우 영향력 있는 학자였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셰펠라에서 산간 지방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차이점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산간 지방과 마찬가지로 이곳도 유다 산간 지방이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고 비슷한 지형입니다. Bethel과 Ai에 대해 이야기하고 다른 강의에서 그 내용을 풀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언덕 지방 지형과 일부 유명한 성경 유적지의 전망입니다. 여기서도 스카이라인으로 예루살렘 교외가 보이지만 이곳은 고대 기브온의 유적지인 지브(Jib)입니다. 테라스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고대 도시는 여기 꼭대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부분적으로 팔레스타인 도시로 덮여 있습니다.

근처의 지브(Jib) 또는 고대 기브온(Gibeon)은 나비 사무엘(Nabi Samuel)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랍어로 선지자 사무엘을 뜻하는데, 그가 묻힌 곳으로 추정됩니다. 성경에는 그가 그곳에 장사되지 않았다고 나와 있지만 라마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중요한 사이트입니다. 그곳은 예루살렘 지평선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발굴 작업을 통해 신약과 구약의 증거가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지키던 망대나 요새였을 것입니다.

나중에 무슬림 군대와 십자군 군대는 모두 나비 사무엘(Nabi Samuel)에 들러 전진하기 전에 성스러운 도시를 처음으로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나비 사무엘은 아마도 기브온 산당이 있던 곳이었을 것이며, 기브온 자체가 아니라 도시와 분리된 산당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 올리브 산에서 지평선 너머로 오늘날 나타나는 나비 사무엘 꼭대기에 이슬람 사원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 초기에 지혜를 구한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텔 엘 풀(Tel El Ful) 또는 사울의 기브아(히브리어로 기바트 샤울) 폐허를 현대적으로 촬영한 초기 장면입니다. Tel El Foul은 단순히 Hill of Beans를 의미하는데, 좀 웃기네요.

그러나 아마도 그곳은 고대 기브아의 유적지일 것이다. 예루살렘은 여기서도 남쪽에 있습니다. 이것은 세겜을 향해 북쪽으로 가는 주요 도로이다.

그리고 이곳은 폐허의 한 모퉁이입니다. 처음에는 1920년대에 올브라이트(Albright)가 발굴했고, 그 다음에는 1960년대에 폴 랍(Paul Lapp)이 발굴했으며, 일부 작업은 그 이후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올브라이트의 작업은 수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Lapp이 더 좋았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곳이 실제로 사울의 기브아 장소인지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마도 가장 좋은 후보일 것입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현대 각주입니다.

여기에 부분적으로 완성된 건물이 있습니다. 요르단 후세인 왕의 여름궁전으로 계획된 예루살렘을 바라보고 있는 건물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1967년 6일 전쟁이 발발했을 때 건설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요르단 왕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아직 미완성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브아나 텔엘풀에서는 지중해와 요르단 계곡을 모두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곳입니다.

거기에서 멋진 경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사울 왕이든 후세인 왕이든 그곳은 이상적인 궁전 장소였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남쪽, 예루살렘 바로 남쪽이 르바임 골짜기의 시작이다.

그리고 실제로 계곡의 시작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남쪽 입구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스만 제국이나 영국이 자파에서 예루살렘까지 철도를 건설한 이래로 사용되었습니다. 나는 오스만 제국이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그 철도는 아직도 존재합니다. 르바임 계곡은 서안 지구와 이스라엘 본토 사이의 녹색 선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1948년과 1967년 전쟁 사이의 국경 지역이었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곡창지대였습니다. 다시, 농장, 농장, 촌락, 마을들이 르바임 계곡 곳곳에 흩어져 식량을 가져왔고 경사지와 계곡 자체에서 식량을 재배했으며 예루살렘과 그 주변 지역에 식량을 제공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의 시작점으로 곡선을 이루기 전 르바임 계곡의 맨 꼭대기에는 라맛 라헬의 언덕 꼭대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현대적인 리조트이자 키부츠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영장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언덕 꼭대기에는 철기 시대 유적지 가 있습니다 .

이제 이 철기 시대 유적지는 1920년대 벤자민 마자르(Benjamin Mazar)에 의해 발견되었고 처음으로 발굴되었으며 그 후 1950년대와 60년대 초반에 마자르 학생인 요하난 아하로니(Yohanan Aharoni)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인 2007년에 텔아비브 대학교에서는 유적지를 대대적으로 발굴하고 재해석했습니다.

이것은 8세기와 7세기, 그리고 기원전 6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라마트 라헬의 궁전과 요새에 대한 그들의 해석입니다. 이 장소는 아마도 적어도 웃시야 통치 초기에 설립되었으며 히스기야도 사용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여호야김이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레미야서에서 언급되는데, 예레미야는 화려한 궁전에 돈을 썼다고 여호야김을 비난하고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는 발굴에서 발견된 것들에 대해 설명합니다. 주변에는 호화로운 정원과 테라스 정원을 포함하여 이곳에도 바빌로니아와 페르시아의 점령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오데드 립시츠(Oded Lipschitz)가 이끄는 텔아비브 사람들은 이곳을 유대 유적지라기보다는 아시리아나 바빌로니아 유적지에 가깝다고 재해석했는데, 물질문화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해석이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행정 유적지로 재사용되었던 유대 유적지였던 것 같아요.

그것은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분명히 당신이 궁전을 갖고 싶어하는 장소이며, 아름다운 경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중해에서 리파이닝 밸리(Refining Valley) 위로 불어오는 바람이 이 언덕의 서쪽 경사면에 닿습니다. 능선길을 따라 더 남쪽으로 가면 예루살렘 남쪽에는 유대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 역사의 대부분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지만 오늘날에는 예수 탄생 교회나 예수 탄생 교회 아래에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큰 팔레스타인 도시입니다. 철기 시대의 예루살렘은 신약성서뿐 아니라 구약성서와 관련하여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한적으로 발굴이 진행된 곳도 있었고, 그곳에서 철기시대 자료도 발견됐다.

다윗이 예루살렘 성문 곁 우물물을 갈망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샘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우물을 파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샘은 없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약 20년 전, 팔레스타인 탐험 분기별 PEQ에 베들레헴 지형에 관한 훌륭한 기사가 실렸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이 초기 기간 동안 베들레헴에 대해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물론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빵집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이전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가나안 신전이 있다는 일종의 암시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곡식의 신이나 그와 유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추측입니다. 여기의 아름다운 전망. 저는 여기 산간지대에 있는 베들레헴과 여기 유다의 광야에 대한 훨씬 더 극적인 광경을 얻었습니다. 그런 다음 균열 너머로 균열을 뛰어넘으면 요르단의 산간지대, 마다바 평원, 또는 성서에 나오는 땅이 보입니다. 미쇼르.

그리고 여기에는 더 극적인 관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은 여기 산간 지방에 있습니다. 산간 지방의 가장자리에는 여기 팔레스타인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여기 이 언덕들로 보이는 유다 광야로 내려간 다음 사해로 내려갑니다.

따라서 여기 높이는 아마도 2,000피트, 2,500피트일 것입니다. 사해는 해수면보다 1,400피트 낮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던 모압 평야의 남쪽 확장인 모압 평야까지의 절벽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랜스요르단 고원의 최고봉이 있고, 그곳이 미쇼르(Mishor), 마다바 평원(Madaba Plains)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지형적, 지리적 영역을 보여주는 매우 극적인 모습입니다. 땅의 그 부분에서. 더 남쪽으로 가면 헤브론, 여기 헤브론 산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도시이고 고고학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꽤 많은 작업이 있었지만 고대 헤브론의 텔(Tell of Hebron) 중 많은 부분이 이슬람 사원으로 덮여 있어 발굴할 수 없습니다. 이곳은 족장들의 무덤으로 유명한 막벨라 굴이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슬라이드쇼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유다 산간 지방의 또 다른 풍경. 그런 다음 남쪽으로 네게브로 갑니다.

네게브는 건조한 바람, 남풍이라는 뜻으로 이곳은 성지, 즉 이스라엘 땅의 남쪽 부분을 가리킨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전환 영역입니다. 성서의 네게브는 브엘세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동쪽 네게브가 있고, 고대 도시 브엘세바의 이쪽에는 서쪽 네게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비가 오는 해에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전환 지역입니다. 건식 농업은 가능했지만 건조한 해에는 불가능했습니다.

농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네게브를 가로질러 경비하고 가자와 아스글론 항구로 향하는 향료 통로를 횡단했기 때문에 전략적,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네게브, 특히 멀리 떨어진 네게브나 남부 네게브를 통제했다면, 우리는 잠시 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당신은 무역로, 즉 향신료 루트를 통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솔로몬이 그 대상들로부터 통행료를 징수했기 때문에 왕국에 그렇게 많은 수입을 가져올 수 있었던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다음은 네게브의 사진과 그 모습입니다. 성서의 네게브인 동부 네게브의 주요 유적지 중 하나는 아라드입니다.

우리는 앞서 아라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실제로 두 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 전경에 보이는 초기 청동 도시인 이 도시는 루스 아미란(Ruth Amiran)이 발굴한 매우 잘 보존된 대도시입니다.

그리고 유다 국경 요새 중 하나인 이스라엘 성채는 1960년대에 아하로니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도 있어요. 초기 시대의 특징인 말굽 모양의 탑이 있는 초기 청동 도시의 성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재건된 성채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의 관문입니다. 브엘세바는 역시 네게브의 여왕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전에 텔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하는 그 사진이나 그 사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된 재건 작업의 일부를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계획도시였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지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유다 왕국에 의해 철기 시대에 매우 신중하게 계획되고 건설되었습니다. 네게브 남쪽에는 네게브 고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따라서 현대 히브리어로 네게브(Negeb)라고 하면 이스라엘 국가의 남쪽, 긴 남쪽 부분을 거쳐 에일랏까지 이어지는 전체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시 성경적 용어입니다. 네게브 고원은 매우 황량하지만 매우 건조하고 험준합니다.

막테시 라몬(Maktesh Ramon)은 큰 분화구입니다. 막타심(Maktashim)은 이 지역에 점재하는 지질학적 또는 지리적 함몰이나 분화구를 가리키는 독특한 이스라엘 용어입니다. 아브돗(Avdot)은 네게브 고원의 신약성서 시대 도시인 나바테아인들이 페트라와 요르단 및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의 다른 대도시들을 건설한 나바테아인들이 건설한 도시입니다.

진 광야. 이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현대의 네게브에 있는 곳입니다. 네게브 고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머물렀던 곳입니다. 여기 진 광야의 또 다른 그림이 있습니다.

11세기나 10세기에 이 매우 척박한 지역에서도 이 광활한 지역의 여러 지역의 언덕 꼭대기에 일련의 준군사 요새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때로는 다른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원형이거나 언덕 꼭대기의 지형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누가 이것을 만들었을까?라는 질문이 여러 번 제기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가? 아마도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지역에 정착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말렉이나 다른 민족과 같은 베두인 사람들이 만든 비이스라엘 유적지였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여전히 미해결 질문입니다. 그것에 관해 작성된 기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 유적지 중 하나는 약간 늦은 9세기 말, 8세기 초의 독특한 방식으로 Kuntillet Ajrud로 더 잘 알려진 Horvat Teman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8세기 유적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매우 흥미로운 사이트입니다. 게데스 바네아(Kedesh Barnea)는 본래 고지대에 있는 또 다른 장소입니다.

다시 기술적으로 말하면 오늘날 시내산에서는 Kuntillet Ajrud와 Kedesh Barnea가 모두 현재 이집트에 있지만 둘 다 시내산을 점령하는 동안 이스라엘인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탑, 여기 요새, 사각형 요새 주변의 탑을 볼 수 있습니다. 게데스바네아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던 곳인데 거기 샘이 있었기 때문이다.

Ein Kedes 샘은 거룩이라는 용어에서 파생된 이름인 Kedesh 또는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좋아요, 네게브 동쪽은 아라바입니다. 이것은 사해 남쪽의 리프트 밸리(Rift Valley)를 에일랏 만(Gulf of Eilat)이나 아카바 만(Aqaba 만,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이)까지 확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일종의 우울증입니다. 그것은 해수면보다 약간 위로 올라갔다가 에일랏 만에 부딪히면서 다시 해수면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인들은 이것을 활용하여 그곳에 초콜릿 우유로 유명한 Yotvata, 키부츠 등의 공동체를 건설했습니다.

초콜릿이라고 하네요. 아라바의 Yotvata 오아시스에서 생산된 초콜릿 우유가 있습니다. 지난 15~20년 동안 실제로 국경의 요르단 쪽에서 대규모 발굴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의 중간 지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요르단 쪽인 와디 페이난(Wadi Feynan)에는 대규모 구리 광산이 발견된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구리 유적인 키르베트 엔나하스(Khirbet en-Nahas)의 주요 유적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UCSD,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고 캠퍼스, 그리고 Tom Levy에 의해 발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과 더 남쪽에 있는 텔아비브 대학교 팀나 계곡의 매우 극적인 발견이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을 통해 다시 발견되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이곳에서의 10세기 활동, 광산 활동, 주요 광산 활동이라는 것을 매우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단순한 지역 조직 운영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것을 할 큰 왕국 정치체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질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이것이 분명히 솔로몬의 작품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곳의 단지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당나귀의 똥을 발견했는데, 당나귀의 관문에 여전히 보존되어 있거나 주인이 짐을 풀고 짐을 꾸릴 때 거기에 갇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발견과 놀라운 발견이 너무 많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에일랏(Eilat)과 에치온 게베르(Etzion Geber). 이것은 항구입니다. 이것이 아라바의 종말이다.

이것은 Aqaba 만 또는 Eilat입니다. Eilat가 여기 전경에 있습니다. 요르단의 도시 아카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나라의 국경이 중앙에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어딘가에 솔로몬의 항구인 에치온 게베르가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였나요? 또 다른 논쟁이기도 합니다.

1930년대 후반에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유명한 랍비 고고학자 Nelson Glueck이 아라바 한가운데에 있는 Tell el-Khalifeh라는 유적지를 발굴했습니다. 이곳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거나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아라바입니다.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남북축의 아라바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었던 성경의 에치온 게베르(Etzion Geber), 솔로몬 시대의 항구이자 구리 광산 단지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용광로와 길가에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있는 구리 광산 단지에 대해 그는 그 해석을 철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이것이 솔로몬의 항구인 에치온 게베르(Etzion Geber)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1980년대, 90년대 초반에 Gary Practico에 의해 재연구되어 출판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락티코는 그 도자기가 솔로몬 시대인 10세기가 아닌 8세기쯤에 만들어진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따라서 Etzion Geber라면 여기에 연대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집트의 국경 너머 더 남쪽에 산호섬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여기의 사진입니다.

내 생각에는 다른 사진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은 보호된 석호가 있는 섬이었으며 에치온 게베르(Etzion Geber) 또는 솔로몬 항구에 대한 우리의 대답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요르단과 아카바만을 건너 남쪽의 사우디아라비아가 보이는 더 나은 그림이 있습니다.

조사하고 살펴본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중세 요새 성이에요. 그러나 그 주변에는 포대형 벽이 있었고 철기 시대 도자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이 에시온 게베르의 장소였나요? 혹시.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Etzion Geber라면 질문이 있습니다.

Glueck이 발굴한 Tel El-Khalifeh는 무엇이었나요? 아마도 성서에 나오는 에일랏(Eilat)이나 에돔이나 이스라엘, 유다, 또는 둘 모두가 차지했던 다른 장소일 것입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는 균열을 건너 여기 트랜스요르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돔의 고원을 봅니다.

이곳은 에서와 그의 후손들이 살면서 에돔 왕국을 이룬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누비아 사암으로, 돌의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아담으로부터 에돔이라는 용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고도가 매우 높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언덕 꼭대기는 해발 3,500피트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고도에서는 적절한 강수량을 얻을 수 있고 건식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고지대에 있지 않는 한 에돔은 매우 건조하고 불모지였습니다.

다음은 멋진 장소 주변의 일부 산이 내려다보이는 페트라 공원의 사진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서의 에돔입니다. 이제 에돔에서 매우 유명한 랜드마크 또는 유명한 장소는 호르 산입니다.

호르산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때 아론이 장사된 곳입니다. 페트라에서 긴 하이킹을 통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전망은 환상적입니다.

실제 성지는 이슬람 성지이다. 그것은 그 아래에 재건축된 비잔틴 신전 위에 지어졌습니다. 실제로 근처의 핀란드 발굴 작업을 통해 산 아래에 있는 복합 건물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이 순례지의 지원 네트워크일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호르산(Mount Hor), 오늘날 아랍어로 제벨 하룬(Jebel Harun)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경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시 에돔에서 아라바(Arava)와 진뱌(Zin-Byan) 광야까지의 풍경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성경 역사의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아라바를 볼 수 있고, 그 다음 안개 속에는 명확하지 않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머물렀던 신 광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덕 지방의 관점에서 본 트랜스요르단의 또 다른 좋은 사진입니다. 또 산간지방, 유다 광야, 미드바르, 사해, 그리고 요르단 고지대를 가리킨다.

따라서 성지에는 매우 다양한 지역과 하위 지역, 그리고 다양한 기후 조건이 있습니다. 일부는 매우 풍부하고 일부는 매우 건조하지만 매우 다양한 지형과 지역적 차이가 있습니다. 매우 감사합니다.   
  
성서고고학을 강의하는 Jeffrey Hudon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7, 지리적 영역, 3부입니다.